

The diagram consists of four curved paths, each representing a different way to combine the words 'KTTU', 'Live together', and 'let live'. The paths are labeled with the words in various orders and orientations, illustrating the concept of 'KTTU + Live together and let live'.

- Path 1 (top left): KTTU + Live together and let live
- Path 2 (middle left): KTTU + Live together and let live
- Path 3 (middle right): KTTU + Live together and let live
- Path 4 (bottom right): KTTU + Live together and let live

KTU + Live together
and let live KTU + Live together

KTUU + Live together

KTUU +

Special Theme

생명존중 캠페인

- 04 현장스케치1 / 동물학대방지연합 유기견쉼터 봉사활동
- 08 현장스케치2 / 생명존중 캠페인 입양행사 현장
- 10 특집 인터뷰 / 동물자유연대 장병진 탐장
- 12 특집 기고 / 동물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 16 KT 인사이드
- 노동조합 김영희 선배님
- 20 한국노총 NEWS
-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당선
- 22 ICT 리포트
- 2023년 ICT산업 10대 이슈
- 24 KTTU 건강백서
- 2023년부터 바뀌는 실손보험제도
- 26 KTTU 생활백서
- 2023년 달라지는 제도
- 28 여행여지도
- 충청

- 32 KTTU NEWS
- 36 현장의 목소리 & 퀴즈

발행인 KT노동조합 위원장 최장복
편집인 KT노동조합 조직처장 김인관
발행일 2023년 2월 13일(격월간)

발행처 KT노동조합
136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206)
T 031-727-2840 F 031-727-2815

기획·제작 (주)윙크디자인 T 02-332-7961~2

꼭 눌러 쓴 방한모 우리가 전하던 온기



맹추위가 기세를 떨치던 시절
칼바람을 맞으며 현장점검을 나갈 때면
털달린 방한모가 필수였습니다.
바람이 매섭고 손이 굵아들어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방한모 꼭 눌러쓰고 발걸음을 뚫었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되었을 청년의 검은 머리 위에
올려졌을 방한모는 자취를 감추었지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반가운 소식을 품어주는
따뜻한 온기는 우리 마음 속에 오롯이 남아있습니다.

KT노동조합은 올해 <생명존중 캠페인>을 전개했다. 유기견 보호소 봉사, 유기동물 입양행사 등을 시작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공감하고 서로 다른 존재들이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활동이다.

캠페인 취지에 대해 최장복 위원장은 “동물보호는 단순히 윤리적 명제가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고 인권을 높이는 길”이라며 “악한 존재를 대하는 방식이 그 사회의 수준을 나타내는 만큼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한다.

“간디는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의 동물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죠. 인간도 살기 힘든데 동물까지 쟁길 여력이 어디 있느냐는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동물을 보호하는 사회라면 인권은 당연히 더 소중히 다루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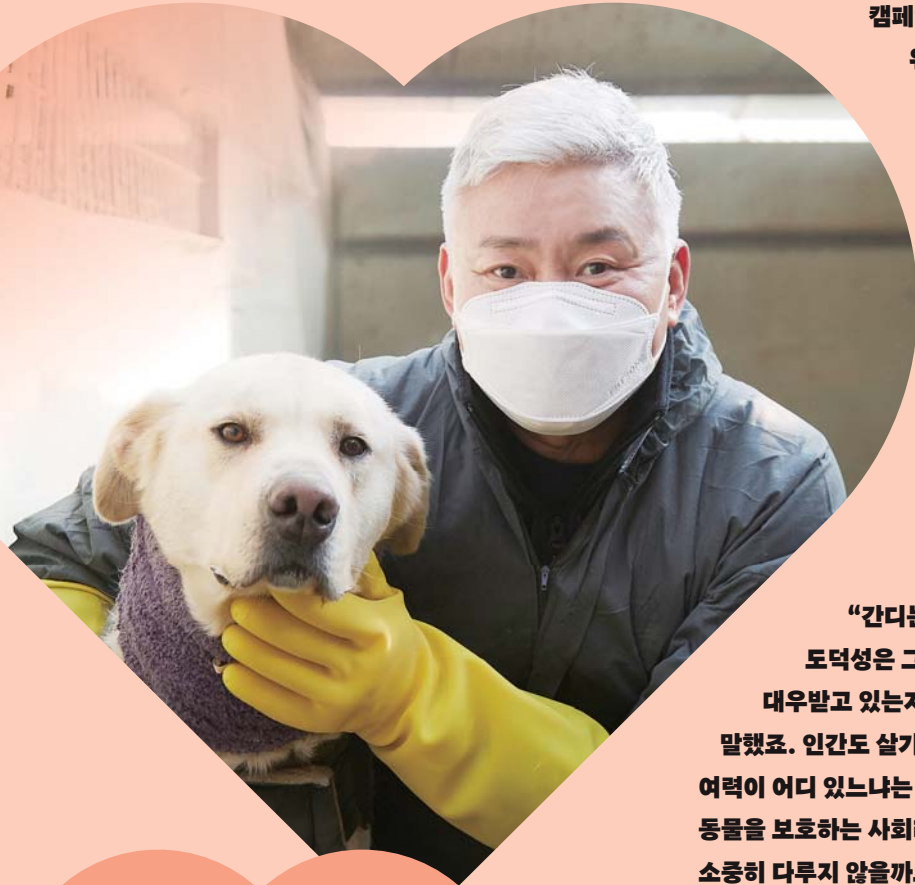
동물 학대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로 이어진 사례는 생명 경시가 우리를 어떻게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하향평준화시키는지 잘 보여줍니다. 생명을 그 자체로 존중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더 살기 좋은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차별과 억압에 맞서 평등과 공존을 위해 활동하는 노동조합이 생명존중 캠페인을 시작한 것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존중이란 좋고 싫음을 뛰어넘는 일. 동물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떠나 있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함께 잘 사는 길이다.

KT노동조합의 생명존중 캠페인

함께 잘 사는 사회를 향해

KT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



차디찬 겨울, 따뜻한 손길을 건네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유기견쉼터. 논밭과 공장단지에 둘러싸인 허름한 건물에 150여 마리의 유기견이 생활하고 있다. 오전 11시경, 굵은 길을 지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하나둘 이곳에 도착했다. 인기척이 느껴지자 유기견들은 환영이라도 하듯 큰소리로 짖기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속속 작업복과 방한용품을 착용하고 보호소로 들어서 바빠 움직였다. 우선, 노사가 합동으로 준비한 사료 1.5t과 방한이불 등 기증품을 보호소에 전달했다. 20kg에 달하는 사료 포대를 나르는 사람들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혔다. 기증품 전달 후 본격적인 봉사활동이 시작됐다. 유기견들의 안전한

여기,
생명이 있어요
지금,
당신을 기다려요

한파가 절정이던 지난 1월 5일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17명은 보얀 입김을 뿜어내며 특별한 곳을 찾았다. 노동조합에서 진행하는 <생명존중 캠페인>의 일환으로 첫 걸음을 댄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을 위해 동물학대방지연합 양주보호소를 찾은 것. 가장 악한 생명이 보호받을 때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믿음으로 내민 손길들이 상처받은 유기견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이동을 위해 언 땅을 고르게 다지고 계류장 안의 배설물과 쓰레기를 쓸고 닦았다. 사람의 손길을 갈구하는 유기견들에게 톱툰 간식을 주고 쓰다듬으며 교감도 나눴다.

같은 날 분당사육에서 진행된 반려견 입양행사를 마친 뒤 도착한 최장복 위원장은 “추운 날씨에도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봉사자들을 격려한 후 직접 사료를 나르고, 보호소를 청소하며 힘을 보탰다.





생명,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애정 어린 손길에도 막상 가까이 다가가면 뒷걸음질을 치거나 구석에 숨는 등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는 유기견들도 있었다. 사람을 사랑했기에, 사람에게 버려진 상처는 생각보다 깊다. 양주보호소의 유기견 역시 대부분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 반려인의 무관심과 학대에 건강을 잃고, 추운 겨울에 거리를 떠돌다 동상에 걸려 발가락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유기동물 보호소라면 ‘차고 넘치는’ 아픈 사연들이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박민정 조합원은 태어나 산책을 한 번도 하지 못해 보호소 밖에 발을 디디기도 어려워하는 유기견을 보며 “반려인으로서 산책조차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니 너무 안쓰럽다”며 “평소 유기견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경험해보니 더 많은 봉사활동을 다녀야 할 것 같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대부분의 유기견쉼터는 늘 일손이 부족하다. 특히, 양주보호소처럼 야외에 있거나, 시설이 다소 열악한 곳일수록 자원봉사자가 적고 추운 겨울에는 더 그렇다. 양주보호소의 김춘희 소장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설이고 시기이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적은 편”이라며 “그래서 KT노동조합의 활동이 큰 힘이 되었고, 이번 활동이 널리 알려져 유기견 봉사활동과

양주보호소를 찾는 봉사자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ICT 기술로 생명을 살린다’는 KT의 다짐처럼 노동조합은 생명존중, 공존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유기동물 봉사활동,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 인터넷 및 SNS 검색

- 거주지 + 유기동물 보호소 검색
- 홈페이지 또는 SNS 방문해 봉사활동 신청

2 봉사활동 홈페이지 신청

- 1365 자원봉사포털 접속
- 검색란에 ‘반려동물’ 또는 ‘반려견’ 검색
- 봉사활동 신청

3 동물보호단체에서 신청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 검색
- 관련 봉사활동 찾는 후 신청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생명존중 캠페인 입양행사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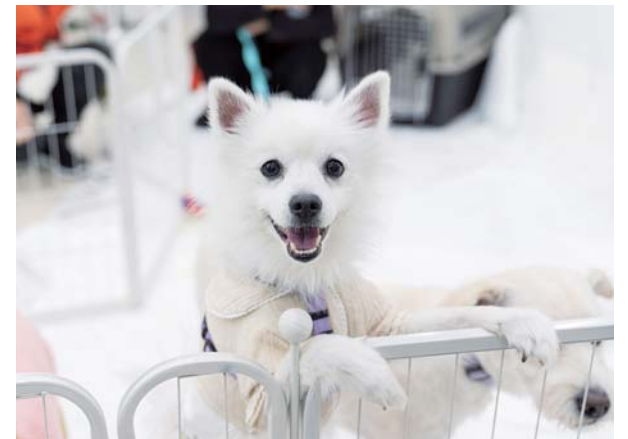


2023년 1월 5일, 분당사옥 지하 1층은 강아지들과 어린이들의 웃음으로 가득 찼다. 노동조합이 개최한 첫 번째 생명존중 캠페인 <편견 없는 생명존중, 인간을 지키는 길입니다>가 열리는 현장. 오랜만에 보호소를 벗어난 강아지들이 세상 구경하랴, 사람 구경하랴 정신없이 뛰어다닌다. 특별 손님으로 초대된 사내 어린이집 아이들은 연신 강아지들과 눈을 맞추고 손을 내민다. 호기심 어린 눈빛과 까르륵 터지는 웃음, 조심스레 내미는 손길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이번 행사는 유기견 입양을 공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다 함께 '생명존중'의 의미를 되새겨보자는 뜻으로 추진됐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이 운영하는 발라당 입양센터에서 가족을 찾고 있는 강아지들이 오늘의 주인공.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된 강아지들을 선보이고, 입양 절차 소개, 1:1 후원 안내, 유기동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 배포 등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생명존중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동물은 아이들과 닮았다.
어떤 편견이나 의심도 없이 존재 그 자체로
상대를 받아들이고 사랑을 나눠준다.
눈을 맞추면 이내 친구가 된다.
친구가 되는 법, 가족이 되는 법,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이 작은 존재들이 알려준다.



“동물이 살기 좋은 세상이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죠”

장병진 동물자유연대 팀장

생명의 무게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약 700억 마리의 동물이 인간에 의해 생과 사가 결정된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러한 동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인간과 동물,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동물자유연대 장병진 팀장을 찾아 우리나라의 동물권 실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동물자유연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물보호단체 중 하나로, 쉽게 말해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물의 보호를 중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유기, 학대 등 몸과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위기동물을 구조하는 일입니다. 현재 남양주와 파주에 안락사가 없는 보호소를 운영 중이고, 인간을 위해 희생당하는 동물의 권리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동물의 권리’라는 말이 아직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동물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시각도 여전하고요. 그럼에도 지금 동물의 권리를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물자유연대의 미션은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윤리적 조화’입니다. 인간과 동물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거대한 생태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이며,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지닌 인간은 상대적으로 약한 존재인 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부터 유색인종,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철폐 및 보호가 꾸준히 요구돼왔듯이 요즘 시대의 사회적 약자인 동물에 대한 보호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약자가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도 인간처럼 감정과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생명체이며, 생명 그 자체로서 보호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동물이 차별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권의 현실과 수준은 어떠한가요?

과거보다 관심이 높아져 상황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적한 문제가 아직 많습니다.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는 반려동물이 생명이 아니라 ‘사유재산’, 즉 물건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주인이 동물을 학대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하면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죠. 사람으로 대입해서 보면 참 잔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대자를 처벌할 때도 우리나라는 판례에 의해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규정은 강해졌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형기준위원회에 관련 양형 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등 동물 학대에 더 큰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 외에도 ‘농장동물’이나 동물원 등의 ‘전시동물’, ‘동물실험’ 등 다양한 영역의 동물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말고도 우리 곁에는 다양한 동물이 존재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반려동물은 비교적 많은 관심 속에서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동물은 관심조차 부족합니다. 특히 농장 분야의 동물들이요. 그중에서도 닭은 A4 1장도 안 되는 크기의 닭장에 3~4마리가 움푹달짝 갇혀 기계처럼 알만 낳는 환경에서 자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도 지속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조금씩 이뤄 가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복지계란’도

그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환경에서 동물의 복지를 최대한 존중하며 사육했다는 인증이죠. 축산업은 국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라 이 환경을 바꾸기 쉽지 않은데, 소비자들이 동물복지계란을 자주 소비한다면 산업의 긍정적 변화도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막상 동물권을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은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사지 말고 입양’하는 것입니다. 작고 귀여운 품종의 인기, 생명인 반려동물을 상품처럼 사고파는 문화는 결국 ‘강아지 공장’처럼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새끼를 ‘생산’하는 구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럴수록 비윤리적으로 태어난 반려견은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고, 반려견을 구매하는 행위는 에는 ‘상품’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에 결국 쉽게 버리는 이유도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펫숍’ 같은 곳에서 반려견을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채식’입니다. ‘고기는 무조건 먹지 말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딱 하루, 한 끼라도 고기 섭취를 줄인다면 그만큼 동물이 소비되는 수도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전등 끄기’ 행사가 에너지 절약 실천과 더불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도 있잖아요. 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식으로 단 한 번이라도 더 동물의 권리를 생각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동물권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나는 청춘의 대부분을 노동조합에서 보냈다. 그때 내게 세상은 단순하고 선명했다.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착취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있고, 그 착취와 고통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잘못된 사회의 구조가 있었다. 그런 세상에서 나는 착취당하는 노동자와 함께 싸우며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다. 하지만 동물권 활동가로서 삶을 시작한 내게 경계는 그리 선명하지 않았다.

글 / 한혁(동물권 활동가)

동물권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양자의 고통으로 행복해하는 것은 없다



우리 곁에 있는 동물 존재해온, 존재하는, 존재할

옥탑방에서 옥탑방으로, 몇 번의 이사를 거친 뒤 좀 오래된 빌라의 1층 같은 지층으로 이사를 했다. 처음으로 땅 위의 세상을 보게 된 셈이다.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피죄죄한 물골에 잔뜩 경계심을 품은 눈으로 차 밑에서 차 밑으로 숨어다니는 녀석의 모습은 낯설었다. 녀석과 몇 차례 조우한 뒤로 괜히 신경이 쓰였다. 측은지심이었을 수도 있지만, 왠지 녀석이 가엽게 느껴졌다. 마트에 가서 고양이 사료 한 봉지를 샀다. 그릇에 수북이 사료를 부어 집 앞에 두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보기는커녕 동물에 일절 관심조차 없던 내가 동물의 세계에 첫발을 디딘 시점이었다.

이상하게 동네에서 고양이들이 눈에 띄었다. 내 집 앞을 오가던 녀석 말고도 골목골목에 고양이들이 많았다. 고양이란 모르지기 사람 사는 집에서 사람이 주는 먹이를 먹으며 느긋하고 한가롭게 사는 동물인 줄 알았는데, 길에서 마주친 녀석들의 모습은 내가 알던 것과는 달랐다.

누군가 키우다 버렸거나 어쩌다 제 발로 뛰쳐나와 길을 잃은 것으로만 느껴졌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현실과 비현실이 섞인 세상이 갑자기 내 앞으로 훑 다가왔다.

갑자기 혼란스러워진 내 세상을 다시 선명하게 만들어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양이 녀석이었다. 집 앞에 밥그릇을 둔 지 얼마 뒤부터 녀석은 하루 한두 번 찾아와 밥을 먹고 갔다. 밥을 먹고 주차장에 드러누워 뒹굴뒹굴 하거나 담벼락에 뻗어 앉아서 햇볕을 쬐곤 했다. 주차된 내 차 바퀴에 찍 오줌을 갈기기도 했다. 밥을 챙기는 나와도 여러 번 마주쳤지만 내게 별로 고마운 기색은 없었다. 그렇게 뻔뻔하고 느긋한 녀석을 보면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동네는 녀석의 '영역'이고 밥그릇의 밥을 먹는 일은 일종의 '사냥'이라는 것을. 녀석도 이 공간에서 나름대로 살아왔고 살아갈 것임을. 우리 동네, 우리나라, 이 지구는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공유하는 공간이란 사실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동물을 포함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었다.

5천만 인구 1년 닭 소비량 10억 마리 '육식생활'은 자연스러운가

인간은 스스로를 '동물과 다른', 동물을 뛰어넘은 보다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구의 전 역사, 동물의 진화사 등에 비추어보면 인간은 극히 최근에 등장한 포식자이다. 인간 개체의 육체적 힘은 나약하기 그지없으나,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뇌를 활용한 지능을 발달시켜왔고 고도로 조직된 군집 생활을 통해 나약함을 극복해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한국 사람은 1년에 소 93만 마리, 돼지 1천830만 마리, 닭 10억 마리 정도를 먹어 치운다. 알에서 갓 깨어난 닭은 성별 검사를 받는다. 수닭은 그 자리에서 살처분되고 살아남은 암닭은 A4용지보다 작은 철창에 갇혀 1년 6개월 정도를 알 낳는 기계로 살다 죽임을 당한다. 평균수명이 10년 정도인 닭에게 너무나 짧고 가혹한 생이다. 돼지는 어떨까? 일단 새끼돼지들은 마취도 없이 이빨과 꼬리를 잘린다. 좁은 사육장에서 스트레스로 다른 돼지를 물어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태지는 고향을 제거한다. 소비자의 미각을 해치는 '돼지 냄새'를 막기 위해서다. 태어나자마자 이런 고초를 겪은 돼지들은 좁디좁은 사육장에 갇혀 살다 생후 160일 정도가 되면 도축된다. 돼지의 평균수명도 10년 정도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달걀, 우유, 삼겹살 등등은 이렇게 '생산'된다. 인간은 잡식동물로 진화했다.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먹거리들로부터 열원을 섭취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 인간의 육식 자체에 도덕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잡식동물이란 말은 또 한편으로 육류 이외의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육식과 채식을 적절히 섞는 것이 사람의 건강에도 좋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육식동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고기를 탐한다. 인구 5천만인 국가에서 1년에 10억 마리 닭을 먹어 치우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일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동물은 ‘모두’ 안에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려동물은 어떨까? 2021년 기준 한 해 동안 개 8만 4천 마리, 고양이 3만 1천 마리가 길에 버려졌다. 이들 중 4만 9천여 마리가 동물보호센터에서 죽어 나갔다. 매일 130여 마리가 단지 버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다. 동물학대 사건도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다. 사람의 사랑을 받는 반려동물의 삶도 아직 순탄치만은 않다.

고속도로와 국도에서는 매년 1만 4천5백여 마리가 차에 치여 죽는다. 고라니, 너구리 노루, 멧돼지 등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도로에서 죽어가는 것이다. 차에 치인 동물들은 구조되지 못한다. 도로 위에서 차에 치이고 치여서 쓰레기처럼 치워진다. 도로변의 투명방음벽에는 연간 19만여 마리 새들이 부딪혀 죽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렇다. 우리가 맛있게 먹고 편하게 사는 동안 이 땅에서 동물들은 수도 없이 죽어간다. 끔찍하고 잔인하지만 편리하게도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고, 제대로 실감조차 나지 않는다. 어쩌면 굳이 알 필요 없고, 굳이 알게 되어 죄책감을 느끼며 살 이유도 없는 문제일 수 있다. 사람 살기도 팍팍한 세상, 동물에까지 신경 쓸 여력도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동물들의 고통과 피로 세워진 탐욕의 성안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삶이 계속 가능하다 해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만물의 영장, 인간이 취할 옳은 태도일까?

사람들은 가끔 내게 묻는다. ‘어쩌다’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이 동물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고. 나는 대답한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고, 그 ‘모두’에 동물들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라고.

생태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동물의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천만 명인 사회, 식용으로 잡아 죽이는 동물의 숫자가 11억 마리에 달하고, 실험용으로 이용하는 동물이 488만 마리나 되는 세상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사회의 가장 약자인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약육강식의 짐승 같은 야만적인 세상을 벗어나 보겠다는 것은 지독히 이율배반적인 태도이다.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 노동조합이 만들 수 있는 미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간에 의해 관리되고 이용되는 동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결단이 필요한 어려운 방법도 있겠지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도 꽤 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더라도 삼겹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위를 먹으면 된다. 유난스러운 삼겹살 사랑을 조금만 포기하면 그 삼겹살을 얻기 위해 희생되는 돼지 수십만 마리를 살릴 수 있다.



돌고래 등 동물을 감금하여 볼거리 삼거나 쇼에 활용하는 곳에 가지 않거나 해외여행을 가서 코끼리 트래킹을 하지 않는 것도 좋다. 사람의 유희를 위해 희생되는 동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싶다면 펫숍이 아니라 동물보호소를 찾아 유기된 동물 중에서 인연 닿는 동물과 가족이 되어보자. 추위를 막기 위해 꼭 거위털 점퍼를 입을 필요도 없다. 동물을 괴롭히지 않고 생산된 따뜻한 옷들이 이제 세상엔 많다.

노동조합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동물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합원들 중에도 반려인구가 늘고 육식을 줄이거나 채식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합원들을 위한 실천이나 복지제도 등을 고민해볼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퇴근이나 반려동물 입양 또는 장례를 위한 휴가 도입 등은 이미 일부 기업에서 조심스럽게 시도되고 있다. 특히 이미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의 확산과 비혼, 1인가구 등 새로운 가족 형태의 출현 속에서 기존 ‘4인 가족’과 자녀 양육, 부모 부양을 중심으로 설계된 복지제도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시작할 만하다. 나아가 구내식당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거나, 작업복이나 근무복을 맞출 때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건 어떨까? 노동조합의 활동 과정에서도 채식선택권을 보장하고, 육식 이외의 메뉴를 조합원들과 함께 나눠보는 것, 조합원들과 함께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활동을 하거나 어려운 조건의 보호소를 지원하는 것도 좋겠다.

조금만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고민해보면 노동조합이 동물들과 공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약자를 착취하지 않고,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 그런 세상이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들이 만들고 싶은 미래이지 않을까?

노동조합 김영희 선배님

“많은 사람이 걸어가면 길이 되죠”



약력

1961 서울 중앙전화국 입사
1968 전국체신노조 서울청지부 부녀부장
1978 한국노총 복지부녀국장
1982 강제 퇴직
1983 정년퇴직 무효확인소송 제기(1심, 2심 패소)
1985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제1회 ‘올해의 여성상’ 수상
1988 대법원, ‘성차별 정년제 무효’ 판결

1989 최종판결 승소 및 원직복직
1990 여성동아대상 수상
1992 정년퇴직
1995 서울시의원
2005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근로여성위원
 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 제1부회장
2015 한국노총 시니어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선배님은 KT의 전신인 전기통신공사에서 강제퇴직 전까지 전화교환원으로 근무했다. 당시에는 체신부 소속 기능직 공무원이었다. 1982년 체신부의 전기통신 업무가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이관되면서 20여 년 교환원으로 일해온 일터에서 강제퇴직을 당했다. 공사가 1982년 5월 인사규정을 바꿔 여성이 99%이던 교환직원 직렬의 정년을 43세로 줄이면서 (일반직은 55세) 자신의 결정과 상관없이 일터를 떠나야만 했던 것. “너무 젊은 나이에 그만둔다는 게 억울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부당한 대우가 명백한데 누가 나서주기만을 바랄 순 없었습니다. 외로운 싸움이지만 나중엔 오기가 생기더군요. 끝까지 싸웠죠.” 7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여성의 조기 정년퇴직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1982년 ‘전화교환원 정년무효확인소송’을 시작으로 1,2심 패소 후 1989년 4월 20일 “남녀차별 정년을 무효로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 이 결과 여성 전화교환원의 정년이 43세에서 58세로 연장됐다. 여성이 겪는 성차별을 공론화하고 사회 전 분야에 경종을 울린 이 사건은 1989년 12월 4일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의 밑거름이 됐다. 전화교환원으로, 노동조합 간부로, 여성운동가로 살아온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1961년 체신부 중앙전화국 교환원(5급 기능직 공무원)으로 입사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동료의 권유에 따라 노동조합에도 가입했다. 여자라고 못할 게 뭐냐는 패기로 분회(당시 한국노총 전국체신노동조합 서울시외 전화국분회)의 노조 간부가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우편전신전화노련(PTTI)의 9박 10일 간부 합숙교육에 참가하게 됐다. 교육 내내 그의 머릿속에 번개가 번쩍거렸다.

“노동조합이란 무엇인지, 조합의 역할이 무엇인지, 요즘 말로는 고용보장이고, 우리가 일한 만큼 자기 몫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약하기 때문에 단결해야 합니다. 조합원을 설득시키고, 단결된 힘으로 회사하고도 교섭해야 하죠.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노동자의 권리에 하나씩 눈을 떴다. 조합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물론 본부나 노총에서 부르면 만사를 제쳐두고 찾아갔다.

혼자만 열심히 다닌 건 아니다. 전화교환원 가운데 여성이 대부분이었는데, 여성 조합원이 함께 갈 수 있는 곳은 모두 불러 모아 참여시켰다.



수차례의 요구 끝에 중앙전화국 안에 노사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안전을 만들어 회사와 ‘협상’하기 시작했다. 국장급과 1시간 면담이 잡히면 5시간은 너끈히 대화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자료를 준비했다. 공무원 복무관리규정도 빠짐없이 숙지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던 전태일의 외침처럼 ‘규정집대로 지켜달라’는 게 그에게는 노동운동의 시작이었다.

여성 교환원의 자금심을 높이는 일도 필요했다. 관리자가 부르는 호칭이 따로 없었는데 보통은 “이년, 저년”. 그게 교환원의 이름이었다. 관리자에게 요구해 호칭시간 중 5분 남짓을 확보했다. 그 시간을 이용해 동료들에게 노동조합의 역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짚어주며 노동자의 권리를 하나씩 찾아갔다.

하나가 힘들지 키우는 건 일사천리

재직하던 1970년대는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고, 야근이라도 하면 저녁을 거르기 일쑤였다. 관보나 신문에는 ‘야식비 지급’이라는 생색을 냈지만 정작 휴일에 일하는 교환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라면도 먹을 수 없는 야식비가 책정됐다. 그는 담당자를 찾아갔다.

“야식비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밥값도 안 되는 야식비를 준다고 신문에 내면 뭐합니까. 교환원들은 24시간 근무해서 저녁에 한 번도 쉬일이 없어요. 휴일근무자며 임시직 다 빼놓고 야식비 계산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따져 물었죠.”

전매청이며 비슷한 기관에서 야식비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알아보고 자료를 준비해갔다. 담당자에게 들이밀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교환원에게 빵과 우유가 지급됐다. 이를 보고 기계실이며 타부서에서도 덩달아 요구하자 그는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하나 만드는 게 힘들지, 다음에 키우는 것은 일사천리”라고 다독였다. 결국 야식비가 정당하게 책정이 되고, 모든 직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다.

이뿐만이 아니다. 분회장이 되고 나서 단협에나 들어갈 사내복지도 하나씩 만들고 고쳐갔다. 여성 교환원을 위한 휴게시설이 전무한 시절에 샤워실을 만들고,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고, 직원 전용 직통전화를 따로 두어 공짜 전화를 쓴다고 감청 받거나 징계받는 일도 없었다. 사측의 일방적인 8시 조기출근 시도에 맞서 전화량을 보고 판단하자며 설득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골치 아픈 전화교환원’이었다.

분회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억울한 구석구석을 살폈다. 상근제가 없었으니 비번에 나와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필요를 철저히 따져보고 조합원의 고통을 빠짐없이 해결해갔다.

전화교환원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욕먹으면서 일하는 교환원도 인격이 있지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자라고 함부로 할 순 없습니다. 우리도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아주 뚝뚝 뭉쳤지요. 저는 딱 이걸로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가 시화전을 열기로 마음먹고 행동으로 옮기자 시외전화국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114 담당이던 그는 무턱대고 청와대에 전화를 걸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회사로 ‘직접 갈 순 없으니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전갈을 보냈더라.

교환원이 직접 시를 쓰고, 야근하던 학생들이 그림으로 공간을 채웠다. 멋지게 한번 해보려는 생각뿐. 마땅한 장소가 없어 체신노조 사무국장을 찾아갔다. 그렇게 마련한 곳이 서울시청 인근의 주한 미공보원(USIS) 2층 소강당이였다. 곳곳에 현수막이 나붙었다. ‘제1회 교환원 시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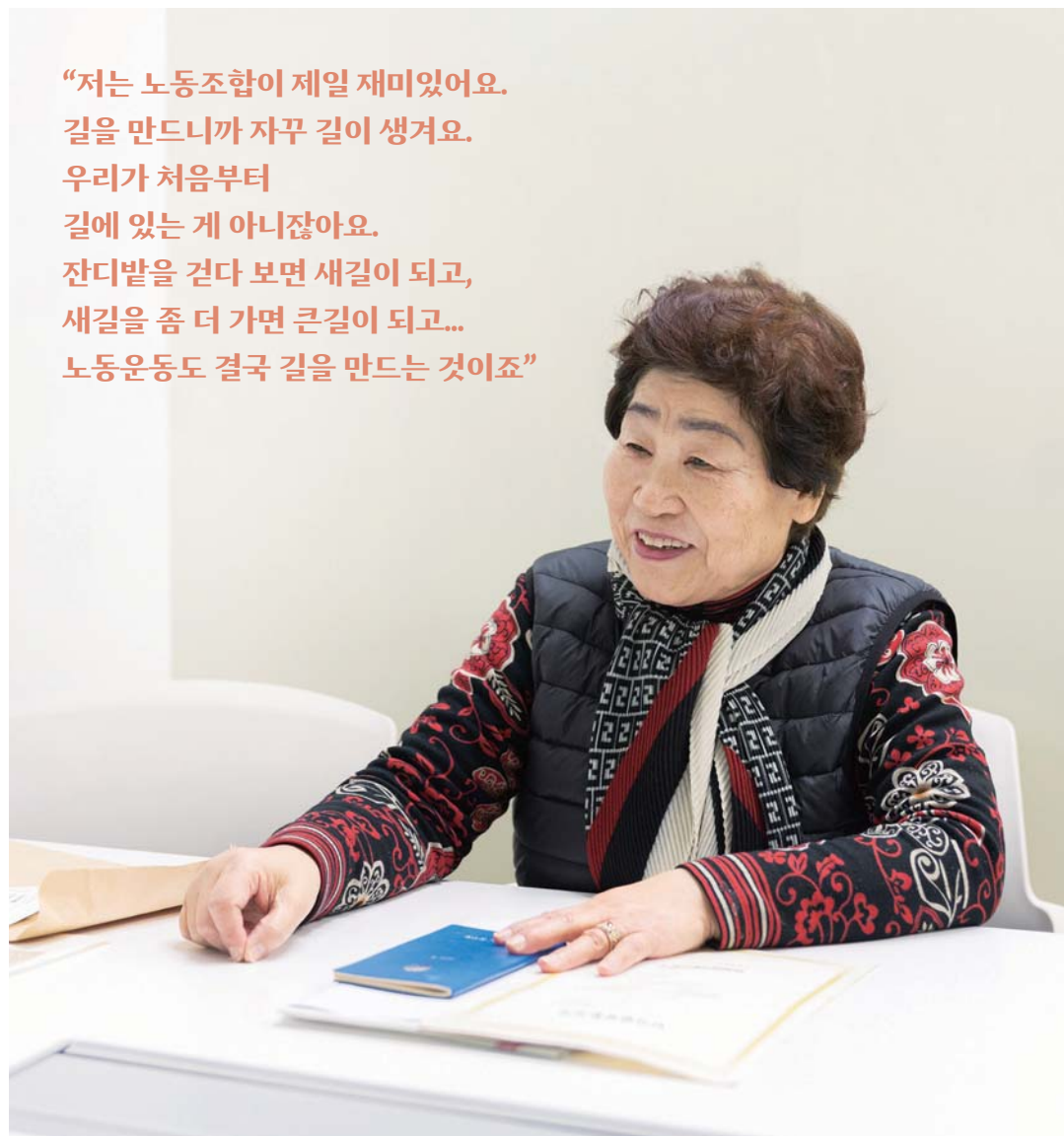
1967년 10월 25일 개막식에는 장관이며 저명한 시인도 방문했다. 방송국에서 교환원을 인터뷰하느라 북적였고, 부끄럽고 숨기려 한 하나의 직업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더욱 빛이 났다. 교환원은 낯빛이 환했고, 이들은 일생에 없는 선물 같은 하루를 보냈다.

노동운동, 새길을 만드는 일

김영희 선배님은 퇴직 후에도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일과 자신을 불러주는 곳을 찾아다녔다. 노동조합 간부가 됐다는 건 조합원이 자신을 믿고 맡긴 것이고, 간부로서 일하도록 만들어 준 것이니, 자신을 선택한 사람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 선배님이 노동조합에 몸담고 지나온 삶이 그러하다.



**“저는 노동조합이 제일 재미있어요.
길을 만드니까 자꾸 길이 생겨요.
우리가 처음부터
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잔디밭을 걷다 보면 새길이 되고,
새길을 좀 더 가면 큰길이 되고...
노동운동도 결국 길을 만드는 것이죠”**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당선 ‘대화·투쟁 병행’ 천명

앞으로 3년간 한국노총을 이끌 차기 위원장을 뽑는 선거에서 김동명 현 한국노총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새 사무총장으로는 김 위원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이 선출됐다.

한국노총은 1월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제28대 임원선출을 위한 정기선거인대회를 열었다. 그 결과 결선 투표 끝에 기호 2번 김동명 위원장 후보, 류기섭 사무총장 후보자가 당선됐다. 18~19대 이남순 위원장이 2002년 연임에 성공한 이후 21년 만에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에는 총 3개 후보자가 출마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조가 나오지 않아,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기호 2번(득표율 43%)과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기호 1번(37%)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했다. 결선 투표에서 총 3,940명의 선거인단 중 3,550명(90%)이 투표에 참여했고, 김동명·류기섭 사무총장 후보자가 1,860명(52%)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기호 2번 김동명·류기섭 후보자는 선거기간 ▲노동개악에 맞서 한국노총 상시적 투쟁기구 전환 ▲사회대전환 ‘범국민회의’ 구성 ▲타임오프 현실화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 ▲지역맞춤형 일자리 모델 추진 등 5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취임사 통해 ‘상시 투쟁기구 전환’ 밝혀

김 위원장은 당선 후 인사말에서 “조합원을 지키고 우리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대화든 투쟁이든 현장과 늘 함께하겠다”며 “이를 위해 동지들과 더 겸손하고 솔직하게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당선인의 첫 행보는 투쟁현장 방문이었다. 김동명 위원장 당선인과 류기섭 사무총장 당선인은 1월 18일 오전 8시 30분 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열린 산업은행 지방 이전 저지 집회에 참석했다. 현장에서 김동명 위원장 당선인은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을 막아내고, 노동이 중심되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 내자”고 격려했다.

이어 1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노동탄압, 노동말살 폭주에 맞서 투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히고 최근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과 설 연휴 직전 양대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등을 강력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자주성이 생명인 노조의 회계를 국가가 감시하겠다는 것은 월권이 아닐 수 없다”며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조 스스로 알아서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합원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이유로 경찰이 1월 19일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는 “정부건설산업 분야의 구조적 문제는 방치한 채 노동자와 노조 때리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한국노총을 상시적 투쟁기구로 즉각 개편하고, 정권의 억압과 탄압에 맞서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제 노동단체 축하 메시지 답지

한편, 신임 집행부 출범을 앞두고 ITUC-AP(국제노총 아태지역본부)와 CMTU(몽골노총) 등 국제노동단체들의 당선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요시다 쇼야 ITUC-AP 사무총장은 “김동명 위원장의 한국노총 위원장 재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롭게 선출된 류기섭 사무총장께도 축하의 마음을 함께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 선출된 집행부가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애써 줄 것을 믿는다”며 “또한, 적극적인 국제 노동조합 활동과 더불어 ITUC-AP와의 협력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마리아 엘레나 ILO ACTRAV(노동자활동지원국) 국장은 “한국노총자를 위한 한국노총의 헌신적인 역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2021년 비준된 협약 87호, 98호, 29호의 이행 및 노조법 등의 개정과 관련된 끊임없는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베로니카 넬슨 OECD-TUAC(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우리 모두는 도전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글로벌 노동운동의 어젠다를 진전시키고 OECD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협력이 강화되길 고대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당선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올해 6월 6일 개최되는 TUAC 전체회의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토모코 요시노 JTUC-RENGO(일본레노) 위원장은 “현재 직면해 있는 노동에 대한 상황들을 해결하기 쉽지 않겠지만, 신임 지도부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한국노총이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권리향상과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전진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친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자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네트워크

경계를 넘어 무한 확장하다

지상과 위성이 통합된 3차원 통신망 구축을 통한 우주 인터넷 시대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전자기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기술로서 양자기술, 그중에서도 양자 암호통신이 차세대 상용화 기술로 꼽히고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 무한 혁신의 촉발제가 될 것이다.

디지털 전환 넘어 디지털 대도약 시대로 2023년 ICT산업 10대 이슈

지난해 말 열린 '2023 정보통신기술 산업 전망 컨퍼런스'에서는 올해의 정보통신 산업 전망이 총망라됐다. 그중 임진국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정책단 단장의 '2023년 ICT 10대 이슈' 발표를 통해 올해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산업과 시장의 흐름을 짚어본다.

반도체



새로운 가능성을 보다

대한민국 수출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경쟁력 선점을 위한 빅테크 기업의 반도체 독자개발 전환에 주목해야 한다.



인공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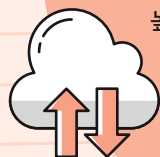
혁신의 허들을 넘다

발전 속도가 예상을 훨씬 웃돌고 있는 인공지능은 매년 10배 이상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AI 도입률은 아직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편. 알고리즘 및 연산속도 개선을 통한 멀티모달AI 개발과 데이터 교정 및 검증을 통한 신뢰 가능한 AI 개발 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안전

연결을 넘어 단절에 대비하라

전 세계 81억 명의 인구가 730억 개에 달하는 사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시대다. 네트워크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 인프라이자 산업적 파급력이 높은 첨단 산업인 만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과 더불어 역으로 디지털 문제로 인한 시스템 안전도 큰 화두다.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이다.



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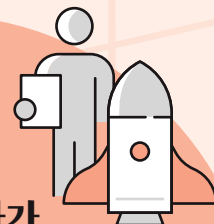


진화에 가속도가 붙다

과거에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지능을 갖고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다. 고성능화와 지능화를 통한 자율성을 가진 로봇으로의 발전, 공간 자체의 로봇화 등 진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우주



디지털 강자가 우주를 지배한다

2022년 나로호와 다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 앞으로도 쏟아지는 우주 데이터를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엠티컴퓨팅 기술과 뉴스페이스 SW 개발에 더욱 주목이 쏠리고 있다. 우주의 방대한 데이터를 우주에서 바로 처리하고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관건이다.

디지털 안보

사이버력이 곧 국방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력은 과거와 달리, 디지털 지휘 통제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을 통한 국가 기간시스템 공격, 5G 기반의 원격 지휘통제 시스템, 드론을 활용한 입체작전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메타버스

내실을 다지며 도약을 준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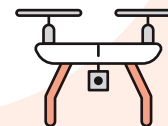


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한 것이 비해, 실제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부족으로 인한 내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메타버스 생태계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킬러 콘텐츠와 NFT의 가치 확장성 확보 등이 메타버스 시대로 나아가는 열쇠가 될 것이다.

모빌리티

지상에서 하늘까지

전기 전동화를 통한 전기차 보급부터,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의 진전이 급성장 중이다. 특히 도심항공교통(UAM) 기체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전기차 상용화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관련 산업구조 전반이 이에 맞춰 변화, 발전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

디지털 패권 경쟁의 전장 확대

기술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기술의 무기화는 더욱 공고해지며, 기술의 범위 확장에 그치지 않고 자국 우선주의 기술의 블록화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또한 기술에서 인재로 패권 경쟁의 양상이 넓혀지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올해부터 원하는 보험 선택해 납입 중지 가능

개인과 단체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했다면 올해부터는 개인보험뿐 아니라
단체보험도 보험료 납입 중지를 할 수 있고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 등 보험 및 연금보험제도가 대폭 바뀌었다.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병원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이 지급하지 않는 비용(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을 가입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상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상품이다. 중복 가입해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치료비 내에서 각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눠 지급한다(비례보상). 따라서 부득이하게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했다면 한 개 상품을 중지해 보험료를 줄이는 게 좋다. 중복 상품이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일 경우 지금까지는 개인 상품만 중지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소비자가 보험료, 보장성 등을 고려해 개인과 단체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회사가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보험료 전액을 내는 단체보험이 개인보험보다 보장 한도가 작고, 보험 기간도 1년 단위로 갱신된다는 점을 고려해 중지 대상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2023년 1월 이후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 특약이 체결돼 있다면 단체 실손보험 중지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입 시기와 유형 따져서 중지 결정 해야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현재 중병을 앓고 있고,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적은 1·2세대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매달 나가는 개인 실손보험료가 아까워 중지시켰다간 3·4세대 단체 실손보험으로 내는 자기부담금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단체 실손보험은 의료비 중 보험가입자가 내는 몫(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은 3·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자기부담금과 가입 시기를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실손보험 중복 가입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www.credit4u.or.kr)의 '실손형보장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달라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할지,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할지 잘 판단해야 한다.

기존에 시행했던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소비자 편의성도 높아진다. 단체보험을 유지하고 개인보험은 중지 신청했다가 퇴직 등으로 개인보험을 재개할 때 지금까지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다. 단 5~15년인 보장 내용 변경 주기가 지나 신규상품으로만 재가입이 가능할 때는 기존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없다.

<실손의료보험 세대별 상품 비교>

세대	가입시기	자기부담금	갱신주기	2023년 평균인상률 (약 8.9% 인상)
1세대	2009년 9월 이전	0%	1~5년	6%
2세대	2009년 10월~2017년 3월	10%	1~3년	9%
3세대	2017년 4월~2021년 6월	급여 10% 비급여 20%	1년	14%
4세대	2021년 7월 이후	급여 20% 비급여 30%	1년	동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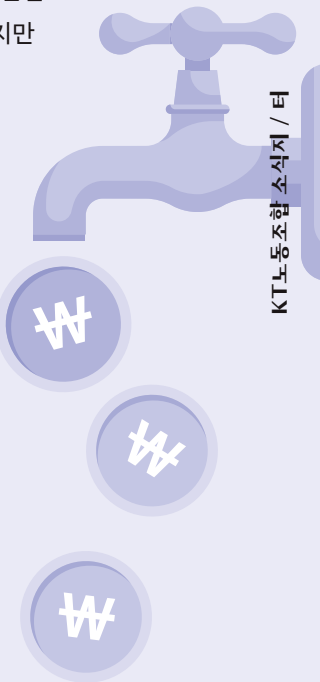
연금계좌 세제혜택 400만원 → 600만원 확대

또 올해부터는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확대된다. 앞으로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납입한도를 다 채웠을 경우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A씨가 연금저축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올해 60만원(납입한도 400만원 x15%)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90만원(납입한도 600만원x15%)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인 B씨가 연금저축에 더해 퇴직연금 납입한도까지 채웠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지난해까지는 84만원(납입한도 700만원x12%)이었지만 2023년에는 108만원(납입한도 900만원x12%)으로 상향된다.

그리고 올해 연금수령분부터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023년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 상향>

총급여액	공제율	납입한도(연금저축납입액)		
		2022년		2023년
		50세 미만	50세 이상	구분 없음
5,500만원 이하	15%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2억원 이하	12%			
1.2억원 초과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새해가 밝으면서 각 분야에
새로운 제도들이 속속 시행되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와 놓치면 손해 보는
‘꿀팁’들을 모아봤다.



지하철 버스 정기권 도입

기존에 지하철만 이용 가능했던 정기권 제도를
개선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한다.
해당 정기권을 통해선 30일간 60회까지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확한 도입일은 아직 미정이나
국토부는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출산하면 부모 급여 월 70만원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11개월까지 70만원의
‘부모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한다. 12~23개월인
1세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는 35만원이
지급된다. 소득, 재산과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후 2024년부터는 지급액이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도 같은 비용을 지급해
부모의 양육 여건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헷갈린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1월 23일부터는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될 예정이다. 따라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만 나이’ 통일

2023년 6월부터 법무부와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이다.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영하다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한다. 기존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되고 식품 특성별로 다르지만
‘소비기한’은 대부분 80~90%로 설정된다.
즉,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면 제품에
표기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해당
변화는 식품 폐기량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섭취 가능 기한을 명확하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1년의 제도 기간 동안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표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학입학금 폐지

2023년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된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학은 2023년부터 입학금을 걷지 못한다.



신용카드 사용 늘리면 소득공제 영화관람료도 포함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면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해준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등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도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올해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정보통신분야 2023년 주요 정책 변화



‘카카오 먹통 방지법’ 시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3건 올해
6월부터 시행.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의무 부과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 기술(UWB) 활성화

스마트폰 이용자가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 진입 시
UWB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기능만 갖추면 해당 기능이
전면 허용 (그간 UWB 기술은
항공기·선박과의 주파수
혼간섭 우려로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500MHz 대역폭
이내로 제한됨)



5G 특화망(이음5G) 활성화

주파수 공급 소요 기간이
사업용은 1개월에서 0.5개월,
공공용은 1년 이상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이음5G
단말기 검사 처리 기간은 약
두 달로 절감

겨울엔 역시 온천
온천은 역시

충청

칼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든다.

코끝을 찡하게 얼리는 추위의 한복판이다.

하지만 추울수록 더 즐거운 게 있다.

뜨끈뜨끈한 온천이다. 이맘때면 절로 온천

생각이 간절해진다. 특히 설경을 바라보며

즐기는 노천욕은 겨울철 최고의 낭만이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면 목은 피로가 스르륵 녹아내린다.

이번에는 어디 온천으로 떠나볼까.

겨울철마다 드는 행복한 고민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국 449개의 온천이 있고

온천을 할 수 있는 업소는 557군데나 된다.

그 중 어느 곳에서 떠나도 대략 중간이 되는

충청권은 온천여행에 최적이다.

사진자료 / 한국관광공사



100% 온천수 워터파크
아산스파비스

충남 아산은 예로부터 물이 좋기로 유명해 피로회복이나 스트레스 해소,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100% 온천수를 이용한 아산스파비스는 놀이와 휴식, 건강증진이 동시에 가능한 가족형 건강 테마온천이다. 무엇보다 노는 '물'이 다르다. 실외온천풀은 물론 실내 바데풀과 키즈풀 그리고 야외 워터파크 등 모든 곳에 온천수가 사용된다. 물놀이를 하면서 온천욕까지 덤으로 즐길 수 있는 셈이다.

● 피나클랜드, 영인산자연휴양림, 아산 레일바이크, 도고 세계식물원, 삼교호 함상공원 등의 제휴관광지가 있으며, 온천 이용객은 제휴관광지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왕의 휴양지
온양온천

국내 최고(最古) 온천인 아산 온양온천은 조선시대 임금이 병이 들면 휴양을 위해 찾던 곳으로 유명하다. '온양관광호텔'은 과거 행궁 자리에 1991년 세워졌다. 온천공(孔)에서 직접 온천수가 공급된다. 정조가 세운 영괴대, 세종대왕이 세운 신정비 등 문화재도 볼 수 있다. 호텔 온천이 부담스럽다면 동네 목욕탕 같은 '신천탕'도 좋은 선택. 1960년 국내 최초로 지어진 현대식 온천으로 반세기 동안 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온양관광호텔' 노천탕에서는 설경을 바라보며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피로회복에 제격
스플러스 리솜

예산의 스펙타스 리솜은 양질의 온천수에서 다양한 스파와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45℃의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알싸한 공기를 맡으며 겨울을 만끽할 수 있다. 2개의 온천공에서 매일 3,800톤의 온천수가 용출되는데, 아토피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내외 워터파크 시설을 갖춰 사계절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여행의 피로를 풀고 싶다면 실내공간인 파라원이 제격. 이곳에는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풋스파를 비롯해 29가지의 다양한 수압마사지로 근육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유럽식 바데풀이 준비돼 있다.

● 차로 10분 거리에 유럽식 농장 체험형 와이너리인 '예산사과와인'이 있다. 예산 특산물 '사과'로 와인을 생산하는 것이 특징. 와인 외에도 오크통에서 숙성한 다양한 증류주를 맛볼 수 있다.



세계 4대 유황온천수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도고온천은 아산을 대표하는 온천지구로 총 6개의 온천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는 압도적 규모와 편의 시설을 자랑하는 곳이다. 2만 5,000m²(약 7,800평) 규모에 최대 5,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온천 워터파크로, 야외온천풀과 유수풀, 키즈풀, 10여 종의 바데시설로 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실내바데, 노천 히노끼탕 등 다양한 놀이시설과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도고온천은 신라시대부터 약수로 이름난 곳으로, 200여 년 전부터 온천으로 개발됐다. 수질은 단순 유황천으로 동양 4대 유황온천 중 하나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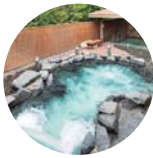
● 주변에 현충사, 외암리 민속마을, 온양민속박물관, 신정호, 맹사성 고택 등 볼거리가 많아 가족 나들이 코스로 좋다.



중부권 최대 워터파크
소노벨 천안 오션어드벤처

소노벨 천안 오션어드벤처는 실내존, 실외존, 야외온천탕 등을 갖춘 중부권 최대 워터파크로 지난해 새단장을 마쳤다. 2종류의 슬라이드가 파배기 모양으로 결합된 '더블 부메랑', 12m 높이에서 아래로 100m 길이의 슬라이드를 질주하는 '스피드 레이싱' 등 신규 어트랙션을 비롯해 총 15종의 어트랙션을 선보인다. 야외존에는 파도를 체험하는 '토네이도 풀'과 '와일드 익스트림 리버' 등도 조성됐다. 유럽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테마로 한 시설들이 특징적이며, 동화를 기반으로 만든 캐릭터 콘셉트룸은 기존 리조트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색적 재미를 선사한다.

● 제휴관광지로 예술의 전당, 홍대용 과학관이 있다. 숙박 고객에 예술의 전당은 기획 공연 30% 할인, 홍대용 과학관은 입장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왕의 온천 수안보온천

수안보는 ‘왕의 온천’이라 불린다. 왕이 즐겨 찾기도 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온천이란 뜻이다. <조선왕조실록>에 태조 이성계가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는 내용이 있고, <청풍향교지>에 숙종이 수안보에서 온천을 즐겼다는 기록이 남았다. 의료 시설이 많지 않던 때, 치료를 위해 찾아오는 이도 적지 않다. 1885년 일본 사람들이 노천식 욕조를 설치한 뒤 수안보가 본격적으로 개발되었고, 1929년에는 근대식 온천의 모습을 갖췄다. 과거에 비해 수안보온천을 찾는 발길이 줄었지만, 꾸준히 사랑받는 까닭은 수질이다. pH 8.3 약알칼리 온천수로 칼슘과 나트륨, 불소, 마그네슘 등 몸에 좋은 성분을 함유해 온천욕을 하면 피부가 매끈해진다.

❶ 석문천을 따라 360m가량 이어진 족욕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족욕탕 6개가 마련돼 있다. 판석을 깎아 만든 탕, 연인을 위한 커플탕, 물안개가 피는 안개탕 등 종류도 다양하다.



탄산 방울이 툭툭 양성온천

수안보온천에서 부드러운 알칼리성 온천욕을 즐겼다면, 양성온천에서 상큼한 탄산 온천을 경험할 차례다. 탄산은 모공을 확장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에 들어가면 탄산 방울 때문에 따끔한 기분이 든다. 탄산음료처럼 툭 쏘는 맛과 재미 덕분에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다. 양성온천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능암온천랜드’는 가족탕이 마련되어 가족 여행자에게 인기가 높다.

❷ 양성온천을 즐긴 후 시간이 되면 충주민속공예거리에 가보자. 5.3km에 이르는 길에 골동품과 수석, 목공예 상점이 늘어섰다.



세종대왕의 치료지 초정 탄산온천

청주에 위치한 초정약수는 미국 샤스타, 영국 나폴리나스와 더불어 세계 3대 광천수로 꼽힌다. 초정약수는 600여 년 전에 발견되었으며, <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 등에 세종과 세조가 눈병과 피부병을 고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고혈압, 위장병, 당뇨병, 피부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초정약수는 1921년부터 일본인이 상품화하여 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도 초정 천연탄산수 공장에서 생산, 국내 시판은 물론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❸ 청주시는 2020년 초정약수 일대에 초정 행궁을 조성했다. 초정 행궁에는 세종대왕이 왕족, 대신들과 머물렀던 침전과 편전, 수라간 등이 복원돼 있다.



충청지역 조합원이 추천하는 충청의 맛

아산짬뽕장어

짬뽕로 무태장어를 구워 걸은 바삭하고 속은 탱탱한 식감을 낸다. 2,000℃ 용광로에서 벗긴 온도를 1,800도까지 내고 거기에 장어를 굽는다. 겹질 쪽은 5초, 뱃살 쪽은

25초 정도 구우면 기름은 꼭 빠지고 식감은 쫄깃하다.

❶ 충남 아산시 시민로422번길 11



길조식당

대표 메뉴인 호박국수는 호박과 전분을 섞은 반죽으로 노랑고 탱탱한 면발을 자랑한다. 국수 위에는 호박볶음을 고명으로 얹어내는데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다. 잘 식힌 홍어삼합도 별미로 동동주와 함께 즐겨도 좋다.

❷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온천로 164-17

귀빈식당

공주의 3대 밥집으로 꼽힌다. 철마다 나오는 제철 나물과 재료를 바탕으로 정성스럽게 요리한다. 정식을 시키면 나오는 각종 나물, 부침개, 생선구이 등 20여 가지의 반찬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대표메뉴는 산더덕 정식.

❸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상가길 12



유림분식

직접 수타한 면을 국물과 어우러진 깊은 향을 내는 육수에 푹 삶아내고 접시에 옮겨 담아 맛깔나는 자태를 뽐내는 칼국수. 달인의 진한 손맛으로 충청권뿐 아니라 전국을 평정한 칼국수로 손꼽힌다.

❹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497



청미래

대표메뉴는 토종 닭과 오리로 끓여내는 닭백숙과 오리백숙이다. 깊은 맛이 우려나도록 푹 고아 부드러운 살점의 식감이 단연 일품인 것은 물론, 각종 채소를 넣고 진하게 우려낸 육수는 보양식으로 손색이 없다.

❺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향교길 114-28



국화농부맛집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쓰기 때문에 건강한 메뉴를 만나볼 수 있다. 인기 메뉴는 버섯전골로, 능이버섯을 포함해 다양한 버섯이

푸짐하다. 상 가득 채워지는 건강한 밑반찬들도 알차다.

❻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19

숙소 정보

신청방법 (홈페이지) KATE→EPR→북리후생→신청→휴양시설
(모바일) KATE→마비서→휴양시설

소노문단양	충북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187-17
포레스트/레스트리 리움	충북 제천시 백운면 금봉로 365
아일랜드 리움	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 204
스플라스 리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3로 45-7
소노벨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종합휴양지로 200

주요소식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업무실적 보고



1월 25일(수)부터 26일(목)까지 실, 처별 업무 보고 및 2023년도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체계적인 사업방향 구상을 통해 조합원을 위한 사업 기반과 성과를 수립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각 사무처, 정책실, 조직처는 최장복 위원장에게 전년도 역점 업무 결과 및 개선점을 보고하고 올해 추진할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했다.

노동조합은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한적이었던 집합교육과 조직강화 활동 등을 추진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정책활동에 한층 박차를 가해 각종 시책을 힘 있게 이끌어갈 방침이다. 또한, 보수, 복무, 인사, 복지제도 등의 적정 운영 점검을 위해 세부 추진사업을 설정,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력을 높일 계획이다.

업무보고를 마친 최장복 위원장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현업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업은 하루빨리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조합원 희망에 부합하는 제도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촘촘하게 다져야 한다”며 “조합원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올해부터 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방법과 필요성,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태원 참사로 응급처치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된 상황에서 조합 간부들에게 심폐소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일상 속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NW 업무최적화 관련
현안 공유



최장복 위원장은 12월 13일(화) 전국 지방본부 위원장과 화상회의를 열고 네트워크 분야 업무최적화와 관련한 현안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업무최적화는 대규모 정년퇴직에 따른 현장 업무 부담 해소 및 조합원 개인 직무가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2021년 단체교섭 합의에 따라 ▲IP엑세스 ▲지역전송 ▲전원(일반국사) 등이 대상이다.

최장복 위원장은 “이번 네트워크 분야 업무최적화 시행에 있어 조합원 직무 재배치 원칙 및 선발기준을 광역본부 권역과 기존 근무지 등을 고려해 생활상 불이익이 없도록 진행할 것이며, 최적화 관련 사측의 합의사항 위반 시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트워크 업무최적화 주요 내용에 대한 조합원 설명회는 12월 14일(수)부터 광역본부별로 자체 진행됐으며, 15일부터 17일에는 조합원들의 재배치 희망부서를 조사했다.

전국 조직국장 및 여성
국장 합동 워크숍 개최



12월 6일(화) 중앙본부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전국 조직국장 및 여성국장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현안사항 및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이틀간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2년 조직사업과 여성국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본부별 사업 실적을 분석했으며, 2023년 노동조합 사업방향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7개 지방본부별 우수 추진사업 사례 공유 및 자유토론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했으며, 이를 2023년도 조직국 및 여성국 사업방향에 반영할 방침이다.

4분기 정기 노사협의회
요구 안건 등 심의·의결



12월 21일(수) 제8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2022년 분기 노사협의회 요구 안건과 2023년도 퇴직 조합원 선물 구매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노후빌딩 환경개선 공사추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제도(디폴트 옵션) 도입 등 2개다. 노후빌딩 환경개선 공사는 조합원이 많고 노후된 건물을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제도는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른 의무화 시행에 의한 것이다.

2023년도
정기 지부대회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방조직운영규정 제32조에 의거, 2월에 열릴 2023년도 정기 지부대회와 관련해 오늘부터 대의원 선출 및 지부장 보궐선거 종료 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대표위원 : 김승찬
- 간사위원 : 손영기
- 위원 : 김경호, 김대진, 박영준, 배정완, 서용석, 유광현, 홍순민

운영기간 | 2023년 1월 31일(화) ~ 종료시점

연락처 | (전화) 031-727-2816
(팩스) 031-727-2812



우리사주 매입결과 및
배정안내

우리사주 청약 시행 이후 금융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사주를 주당 36,764원에 매입 완료했다.



공정인사 감시단
신고센터 운영

네트업무 최적화 시행에 대한 공정인사 감시단 활동을 12월 14일(월)부터 개시했다. 감시단 활동은 재배치 종료 시까지 진행된다.



2023년 1월
성과급 지급 안내

재직 중인 G직을 대상으로 2023년도 1월 성과급이 1월 19일(목) 지급 완료됐다.

복지

2022년
성과배분금
지급 안내

-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G직(청원경찰 포함)
- 배분기준** | 영업이익의 10%(별도 손익계산서 기준)
- 지급일정** | 경영실적 대외발표(공시) 시점을 고려해 분할 지급
 - [1차] 2022년 1~9월 실적 기준 : 2022년 12월 23일(금)
 - [2차] 2022년 10~12월 실적 기준 : 2023년 3월 24일(금)
- 성과배분 1차 지급액 산출 기준
 - 성과배분 기준 영업이익(c) : 11,503억원
 - 성과배분 재원(d=c*10%) : 1,150억원
 - 1인당 지급액(d÷19,614명) : 5,863,150원



2022년 4분기
희망퇴직 신청자 접수

12월 12일(월)부터 19일(월)까지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단체 입원실손보험
가입 신청

2022년 12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본인과 가족 단체보험 가입 접수를 받았다.

2023년
봄 휴양소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호텔/리조트 : 2023.2.3(금) ~ 2.8(수)
콘도 : 상시
- 이용기간** | 호텔/리조트 : 2023.3.2(목) ~ 5.30(화)
콘도 : 신청일 기준 15일 이후, 120일 이내
- 승인일** | 수련관·호텔/리조트 : 2.9(목)
콘도 : 매주 월/목
- 신청방법** | (PC) Kate → ERP → 복리후생 → 신청 → 휴양시설 또는 (모바일) Kate → 마비서 → 휴양시설
 - 수련관, AI호텔&리조트, 콘도 선택 및 이용 시기 선택 후 조회 및 신청
 - 당해년도 미이용 직원은 신청사유 '당해년도 미이용' 선택 신청 시 우선순위 적용
- 선정순위** | 생활입소 → 당해년도 미이용 → 저이용 → 저직급 → 저연령



2023 상반기
리프레시 휴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3년 상반기 리프레시 휴직을 시행한다.



동계 임직원 및
가족 의료행사 신청

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안과, 치과, 성형외과 할인 행사 신청을 받고 있다. 기간은 2월 28일(화) 18시까지다.



내일설계휴직
신청

2022년 하반기 내일설계휴직 신청을 12월 15일(목)부터 28일(수)까지 받았으며, 29일(목) 선발결과를 발표했다.



퇴직연금제도 전환
신청

DB형 또는 혼합형 가입 조합원 중 희망자에 한해 퇴직연금제도 전환 신청을 받았다. 전환일은 1월 30일(월)이다.



복지포인트 지급

2023년 복지포인트(공통포인트, 미래육성 포인트) 지급이 1월 6일(금) 진행됐다. 상·하반기 기여포인트는 각각 5월 4일(목), 7월 7일(금)에 지급될 예정이다.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소식을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터>를 읽은 느낌과 생각을 퀴즈 정답과 함께 메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강남/서부NW운용본부 경기남부엑세스운용센터
수원운용팀 정원환

요사이 노동개혁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관련 기획을 읽고 노동시간의 단축이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닌, 노동자들의 투쟁의 산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되는 임금, 건강과 관련 있는 노동시간 단축이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넘어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모색’ 차원으로 검토되고 논의되도록 우리 KT노동조합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NW운용본부 대구엑세스운용센터
철곡운용팀 정준현

금번 타결된 임금협상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좋았고, 지역 맛집과 구경거리 소개도 좋았으며, 수련관과 콘도 등 휴양시설의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좋았습니다.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우리들의 소식지 <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구/경북고객본부 OSP담당 OSP지원부
OSP지원2팀 박정은

<터>에 실린 본부소식, 복지, 임금 관련 정보, ‘길 따라 맛 따라’ 등 알기 쉽게 정리가 잘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충남/충북법인가객본부 충남법인가객담당
서대전법인가객영업부 법인가객영업2팀 김경수

매번 전해주시는 알찬 소식 잘 보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세요!

네트워크관제1센터 코어망관제팀 유철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퀴즈 코너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알쏭달쏭 건강검진 결과표 제대로 읽는 법이 매우 유익했습니다. 늘 좋은 정보를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남/전북광역본부 컴플라이언스팀 임현수

소식지 <터> 10호를 통해 2022년도 단체교섭 주요사항을 한눈에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합원 각자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단체교섭 결과를 만들어 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 계묘년에도 더 좋은 소식지, 더 즐거운 소식지를 받아 보았으면 합니다.

강북/강원NW운용본부 서울강북엑세스운용센터
충정엔지니어링부 김현우

겨울을 맞아 어디에 가서 휴가를 보낼지 고민이었는데, 2022년 동계 휴양시설, 생활입소 관련 정보를 얻어 잘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알찬 소식을 담은 KT노동조합 소식지 <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북/강원NW운용본부 서울강북엑세스운용센터
충정엔지니어링부 품질분석팀 하나래

여행 정보와 맛집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여행지와 맛집 소개 많이 부탁드립니다.

강북/강원광역본부 북부고객본부 노원지사 강북지점
CM2팀 김재평

2022년도 단체교섭 요약이 한눈에 들어와서 좋았습니다. ‘길 따라 맛 따라’를 통해 좋은 정보를 보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곳을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좋은 글과 회사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융합기술원 기술경영담당 기술사업화팀 이원영

‘더 크게 누리고 가꿔가요’를 통해서 임단협으로 변경된 제도를 그림으로 설명해주니 이해가 쉬워 좋았습니다.

KTTU
초성
QUIZ

네모 칸 속 초성과 힌트를 읽고 낱말을 완성해 보세요.
정답과 함께 소식지 [터]를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2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예 : ㄴ ㄷ ㅅ ㅇ → 노동조합]
보내실 곳 | mabin@kt.com(김민수 편집국장)

우리 노동조합은 올해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추구하는 하기 위한 의식 개선 및 실천 활동을 시작했다. 1월에는 이 활동의 일환으로 유기견 보호소 봉사, 유기견 입양행사 등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8페이지 참고)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병원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이 지급하지 않는 비용(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을 가입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상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상품 (24페이지 참고)

올해부터는 식품의 유통기한 표기가 이것으로 대체된다.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해당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한계 기간의 80~90%로 설정이 되어 식품 폐기량이 줄고 안전한 섭취 가능 기한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27페이지 참고)

KT임직원 감사 답례품(기프티쇼) 할인 안내

최대할인
10%

임직원님의 애경사를 같이 해주신 분께 답례 시,
조금이나마 편익을 드리고자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쇼)을 할인해 드립니다.

★이용 방법 및 절차

- 다온플랜 홈페이지 (daonplan.com) > 소식 > 회사소식에 공지 확인
- 첨부엑셀 양식 기입 후 다온플랜 이메일로 전송 (메일 : daonplan1555@naver.com)

★할인 안내 (판매가 금액 합계)

금액대 구간	할인율
3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3%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5%
2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7%
400만 원 이상	10%

★유의 사항

- 해당 기프티쇼는 B2B 프로모션 선물용으로 유효기간은 60일이고 연장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 해당 기프티쇼는 유효기간 도래 전 안내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KT멤버십 중복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선물용이기에 본인 사용용도로 구매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선택 가능한 상품은 물품교환형입니다.
 - 부득이 금액형 또는 상품권 등 일부 상품 선택 시 할인 미적용 및 판매가 합계 시에도 산정 제외
- 신청 시간(영업일 09:00~17:00) 이후 신청 시 익영업일 발송됩니다.

★할인 예시

브랜드	상품명	판매가(적)원	수량(개)	소계	비고
스타벅스	아이스 카페 아메리카노 Tall	4,100원	100	41만 원	커피 1잔
스타벅스	부드러운 디저트 세트	12,700원	100	127만 원	커피 2잔, 조각 케이크 17개
배스킨 라빈스	마음을 드려요	26,000원	30	78만 원	아이스크림 케이크
판매가 합계				246만 원	

→ 7%할인 (172,200원)된 금액 2,287,800원을 입금

문의 다온플랜 1577-1555 (ARS 3번)

아플 때  힘이 되는

가족사랑 헬스케어 서비스

· 헬스케어서비스란?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부터 질병 발병 후 치료 지원의 단계를 면밀히 관리해 드리는 서비스

 헬스 콜 서비스 1577-1555 → 4번

- 지원 대상 다온플랜 회원과 직계가족
- 이용 시간 24시간 365일



일상 케어 ⁺

- 건강상담
- 병원 및 명의 안내
- 검진 상담 및 우대 예약
(KT 복지제도에서 검진 지원되는 분은 제외)



질환 케어 ⁺

- 상급종합병원 진료 예약
- 간호사 진료 동행
- 차량 에스코트



※ 가족사랑 헬스케어서비스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다온 헬스케어 콜센터 (☎1577-1555 → 4)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콜센터
☎1577-1555 → 4



모바일 앱
[KT다온헬스케어]



서비스 이용